

전남

지금 해남읍내는 아파트 구하기 전쟁

대부분의 농촌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해남군 관내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녀 교육·도시계획 이주자들 아파트 선호

매매·전세 1천만~3천만원 급등 기현상

모집업에 거주하고 있다"며 "아파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말했다.

황산면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진 모(43)씨도 "자녀들의 교육 등을 이유로 3개월 전부터 이사갈 읍내 아파트를 찾고 있다"며 "전세로 들어가길 원하는데 아직까지 전세로 나온 아파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급에 비해 워낙 수요가 달려 매물이 나오면 즉시 계약이 이뤄지는 바람에 거래 자체가 뜸한 상태다.

해남읍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

하는 김모(61)씨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5천200만~5천300만원대였던 해남읍내 G아파트가 지난해 6천500만원의 매매가로 나왔을 정도"라며 "매매든 전세든 문의가 자주 오지만 지난 6개월여 동안 전세는 5건, 매매는 10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 사실상 거래는 드문 편"이라고 말했다.

건립초기 분양에 어려움을 겪어 분양가 아래로 거래가 이뤄지던 H아파트도 현재는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분양이 완료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34평형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3천여만원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남읍 소방서앞 부지에 착공될 계획으로 현재 부지매입까지 완료된 주공 3차 아파트 건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군의 주택보급률은 88.5%에 불과한데, 대부분의 주거지가 해남읍에 편중돼 주택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한조선 산업단지

지와 배후단지 등이 조성될 경우 3만3천여명의 인구 유입요인이 발생해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 조속히 주공 3차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에의 일생을 한눈에'

내일 개막 농업박람회 '생태관' 전시

'누에의 일생을 한눈에 보고 5만 개 누에고치로 만든 F1 자동차 모자이크 앞에서 사진도 찍으세요'

23~27일 개최되는 '제 8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전시관 가운데 '누에생태관'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시관에서는 형형색색의 컬러 고치를 비롯해 어린 누에인 1령부터 큰 누에인 5령까지 단계별로 누에가 꿈틀꿈틀 뽐을 먹는 모습과 누에고치 짓는 과정, 고치를 뚫고 나오는 나방, 누에나방 알 낳기 등 누에의 일생을 생생하게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동결건조 누에와 동충하초 생산용 번데기를 비롯해 번데기에서 자실체가 자라나는 과정을 거쳐 완전한 동충하초가 되기까지의 단계별 재배과정을 표현한 잠상산물 코너는 관람객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명주와 천연 염색의 신비로운 만남 코너는 누에고치에서 생산한 명주에 천연색을 물들인 천연염색 제품들과 누에고치를 활용한 장식전구, 소품 인형들이 전시된다.

이 밖에도 누에를 직접 만지고, 뽐을 주기, 물레를 이용한 누에고치 실 뽑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전시장 내에는 누에고치를 염색해 만든 형형색색의 누에고치 트리와 누에고치 장승, 5만여 개의 누에고치를 염색해 만든 '달려라 F1'이란 제목의 대형 자동차 모자이크 작품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꾸며진다.

목포교도소 100년사 나왔다

개소 100주년 기념·발자취·교정 변천사 등 담아

목포교도소(소장 김상두)가 개소 100주년을 맞았다.

목포교도소는 21일 지역주민·유관 기관 및 단체장·직원 및 가족·교정참여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랑 100년, 미래 도약 원년'을 선포하는 개소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개소 100주년을 맞아 발간한 '목포교도소 100년사' 출판 기념회도 함께 열렸다.

100년사는 현지 출장과 온라인, 우편 등으로 수집된 도서 120권, 사진 자료 7천여장, 기록물 857건, CD 19권, 미국과 일본 등에서 수집된 외국 자료 21건 등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목포교도소 소사(所史)와 함께 한국 교정의 역사가 담겼다.

또 주요 선진국의 교정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미래교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상두 소장은 "그동안 축적해온 자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목포교도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교도소는 1909년 10월 21일 통감부령 제 31호를 근거로 광주목포교도소 소사(所史)와 함께 한국 교정의 역사가 담겼다.

목포교도소(소장 김상두)가 개소 100주년을 맞았다. 목포교도소는 21일 지역주민·유관 기관 및 단체장·직원 및 가족·교정참여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랑 100년, 미래 도약 원년'을 선포하는 개소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개소 100주년을 맞아 발간한 '목포교도소 100년사' 출판 기념회도 함께 열렸다.

김상두 소장은 "그동안 축적해온 자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목포교도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교도소는 1909년 10월 21일 통감부령 제 31호를 근거로 광주목포교도소 소사(所史)와 함께 한국 교정의 역사가 담겼다.



좁은 잎 해바라기 꽃길따라 가을로

21일 함평군 함평읍 함평엑스포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노란 꽃물결을 이룬 좁은 잎 해바라기 꽃길을 자전거로 달리며 가을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전남농협, 양파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완도 초등생 11명 신종플루 감염

내달 27일까지 무안서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양파 농작물재해보험을 지난 20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무안에서 판매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가을과중 양파가 해당되며, 무안지역에서 양파를 1천500㎡ 이상 경작한 농가로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장의 범위는 종합위험방식으로 보장하는 재해는 태풍·우박·동상해·호우·강풍·냉해·한해(투해)·조해

(潮害)·설해(雪害) 기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 5조 제 1항의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함한다.

피해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는 과중 후 양파 식물체가 70% 이상 고사한 경우 지급되는 '경작불능보험금'과 평년수확량의 30% 이상 수확량이 감소한 경우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이 있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보험료 중 정부 50%, 지자체 30%를 각각 지원하므로 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완도초 휴교... 관리 비상

완도에서 초등학생들이 신종 플루에 집단 감염돼 완도초등학교가 휴교에 들어가는 등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완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완도초등학교 남녀 어린이 6명, 21일 완도초중등학교 어린이 5명 등 모두 11명이 신종 플루 환자로 확인됐다. 그러나 날씨가 점차 쌀쌀해지면서 신종 플루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역 학부모들은 "완도초등학교 학생 6명 등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기까지 학교와 보건당국은 도대체 뭘 했느냐"며 예방소홀을 질타하고 나섰다.

한편 완도초등학교 등 일부 학교 어린이들은 신종 플루가 유행하고 있는 시점인 지난 여름방학 기간동안 외국 여행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 학부모들은 "너무 경솔한 처사가 아니었는가"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Korea National Law Auction) featuring a table of auction item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태양광발전소 및 사업인수 (Solar Power Plant and Business Acquisition) with contact details and a list of projects.

Advertisement for 다사랑(유통) (Dasarang Distribution) featuring a list of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